

물결치는 성산에서 걸어 올린 그림책 이야기

세계자연유산마을 프로젝트 내달 '성산, 마을 그림책 마당' 어르신·어린이 그림책 바탕 발표회·그리기 체험 등 진행

성산일출봉이 바라보이는 마을에 그림책 이야기가 펼쳐진다. '세계자연유산마을, 그림책을 품다' 프로젝트로 다음 달에 열리는 '성산, 마을 그림책 펼침 마당'이다. 제주도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

이 주최하는 이 프로젝트는 세계자연유산마을에서 그림책을 창작하고 즐기며 그림책으로 새로운 마을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했다. 올해 성산에 앞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구좌읍 김녕리에서 프로젝트를 벌였다.

사업 진행을 맡은 제주도서관연구원 이은아씨는 성산마을 어르신 11명과 제주 화가 김연숙이 함께 한 그림책 수업을 통해 '성산인생'이란 제목의 창작 그림책을 제작했다. 1938년~1946년에 태어난 어르신들이 성산의 자연 속에서 살아온 진솔한 사연을

바탕으로 일출봉, 통밭알, 우뚝개, 수마포, 오정개 등을 직접 그렸다.

성산초 5~6학년 어린이 18명을 대상으로 그림책 창작 수업도 이뤄졌다. 그림책 작가 권운덕이 이끈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은 '물고기가 행복해야 우리가 행복하다', '바다신이 다시 빛날 수 있게 해줄게' 등 바다에 대한 이 시대의 이야기를 담아 저마다 1권씩 모두 합쳐 18권의 그림책을 완성했다.

'성산, 마을 그림책 펼침 마당' 첫날인 11월 5일 오후 4시부터는 성산마을 어르신, 성산초 어린이들

의 창작 그림책 발표회가 열린다. 11월 6일 오후 1시엔 '성산마을 어르신 작가들과 함께하는 마을 탐방'이 준비됐다. '권운덕 그림책 작가와 함께하는 물고기 드로잉', '김연숙 화가와 함께하는 성산일출봉 그리기' 등도 진행된다.

성산일출봉 진입로 일대에서는 거리그림전을 만날 수 있다. 성산에서 걸어 올린 그림책 원화 전시는 12월 28일부터 2022년 1월 27일까지 세계자연유산센터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체험 행사 등 문의는 010-6215-5251. 진선희기자



자작나무숲의 숲속 힐링 콘서트.

숲속 콘서트에서 평화의 울림까지

10월 마지막 주 잇단 공연 클라리넷 앙상블 B-M 등

10월의 마지막 주, 클라리넷 앙상블의 화음에서 숲속 콘서트까지 모양과 빛깔이 다른 음악회가 이어진다. 클라리넷 앙상블 B-M은 이달 30일 오후 3시 30분 아라뮤즈홀에서 '극복'을 주제로 일곱 번째 정겨운 주회를 연다. 임대홍의 지휘로 강문철 창작곡 '한라산의 사계' 중 '겨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희가 협연하는 비탈리의 '샤콘느' 등을 들려준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30일 오후 5시 제주아트센터에서 '평화, 마음의 울림' 두 번째 제주평화음악회를 펼친다. 김홍식이 지휘하는 제주도립 제주교향악단,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첼리스트 김민지, 장세남 연주자 고희우가 출연한다. 제주대심포니오케스트라(JNU, 지휘 허대식)는 29일 오후 7시 30

분 제주아트센터에서 개교 69주년 기념 제38회 정기연주회를 갖는다. 음악학부 양신국(테너), 김세영(클라리넷), 문수정(바이올린), 문혜린(피아노)이 협연을 맡는다.

서귀포예술의전당은 시민 예술인재 양성을 위한 '문화를 꿈꾸며, 삶을 노래하며'를 기획했다. 30일 오후 6시 서귀포예당 대극장에 오르는 이들은 음악, 무용 등 29명에 이른다.

자작나무숲은 2021년 마지막 힐링콘서트로 30일 오후 2시 사라리 숲, 31일 오후 2시 서귀포치유의숲에서 숲속 힐링 콘서트를 펼친다. 서귀포시청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연을 즐길 수 있다.

대금 연주자 신은숙은 28일 오후 3시 제주문화재단 소극장에서 '치악치심(致樂治心)'을 주제로 대금, 가야금 영상 앨범 제작을 겸한 공연을 벌인다. 교수 김용하, 가야금 국선미, 피아노 차진실이 함께 한다. 진선희기자

120년 전 청년 이재수와 누이 이순옥

이지유 개인전 '...이재수 실기' 탐미협 신축항쟁 기념 기획전

120년 전 제주 청년 이재수와 그의 누이 이순옥을 기억하는 미술전이 나란히 열리고 있다. 예술공간 이아에서 진행 중인 이지유 개인전과 제주4·3평화기념관 2층 기획전시실을 채우고 있는 탐라미술협회의 기획전이다.

이지유 작가는 2021 제주문화에 살재단의 일반예술창작활동지원

(개인)과 이아 대관공모 선정 전시로 '새의 눈 벌레의 눈-이재수 실기'를 펼쳐놓고 있다. 2019년 '새의 눈, 벌레의 눈'의 연작 전시로 '아월의 한라산-이재수 실기'(일본, 1932)의 내용을 현대어로 번역해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순옥, 오사카', '대정성전투', '성안의 여인들' 등 회화와 영상 작품을 제작했다.

이지유 작가는 '여성, 제주, 제일제 주인 등 가장 바깥쪽에 쓰여진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재수 실기'의 의미가 있다'며 "이 전시

는 '이재수의 난' 사건 그 자체를 전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기록의 과정과 의미를 통해 갈등을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을 전달하는 것에도 다른 목적이 있다"고 했다. 지난 1일부터 시작된 전시로 11월 3일까지 계속된다.

탐라미술협회는 '신축항쟁' 120주년을 기념해 지난 2일부터 24명의 작가가 참여한 '청년 이재수'전을 열고 있다. 1901년 신축항쟁 당시 장두로 나서 목숨을 던졌던 22세 청년 이재수를 중심으로 신축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작품들을 창작해 내놓았다. 전시는 11월 30일까지. 진선희기자



이지유 개인전 '새의 눈 벌레의 눈-이재수 실기'에 전시된 수채화 '순옥, 오사카'.



강애선의 '치유의 시간'.

있는 그대로 빛이 나는 존재를 위해

강애선·강문석 조각전
윤정민의 드로잉 조각
서지은·김가현 개인전

여기 자연이 있고, 사람이 있다. 코로나19가 불러온 변화 속에 가까이 있는 존재들을 다시 들여다본 작품이 펼쳐지는 개인전들이다.

조각가 강문석은 제주 섬의 초록빛 초원을 달리는 제주마(馬)를 제주석과 철, 동, 나무 등으로 형상화했다. 조각 특유의 입체감이 느껴

지는 것은 물론 동선을 용접하는 방식으로 드로잉처럼 대상의 특징을 묘사한 작품들이 나왔다. 11월 4일까지 갤러리 ICC 제주.

강애선 조각가는 감염병 시국에 미뤄졌던 꿈과 계획을 돌아보며 첫 개인전을 열고 있다. 테라코타, 석고 등으로 '기원', '모녀상', '축복', '가족' 등을 빚었다. 10월 30일까지 이룸갤러리에 이어 11월 한 달 동안 지오갤러리에서 또 한 차례 전시를 갖는다.

제주시 아트스페이스 새탕라움에선 환경면에 있는 예술꽃 산양 1기

입주작가인 윤정민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아무, 사람'이란 이름을 단 이 전시에서 윤 작가는 입체이면서도 평면성을 추구한 '드로잉 조각'을 선보이고 있다. 11월 10일까지.

서지은 작가는 첫 개인전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를 준비했다. 10월 30일까지 심현갤러리에서 이어지는 전시로 "밤하늘의 수많은 별과 같이 개개인은 있는 그대로 충분히 빛을 내는 소중한 존재였다"는 말을 건넨다.

제주청년미술작가회에서 활동하는 김가현 작가는 '돌'을 주제로 석사 학위 청구전을 열고 있다. 이달 28일까지 제주웅기미술관.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쏙지

어린이 인권 창작 그림 공모

서귀포시민연대가 8~13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창작 그림을 공모하고 있다.

응모작은 8절지 크기 도화지에 재료나 형식에 제한 없이 인권 문제를 담은 그림이면 된다. 접수 기간은 11월 10일까지(소인 유효)로 서귀포시 일주동로 8660 지하 1층 서귀포시민연대로 보내면 된다. 문의 762-0615.

양성훈 서예가 '영주십경' 전

양성훈 서예가가 이달 30일~11월 4일 문예회관 3전시실에서 두 번째 개인전을 연다.

봉개동주민자치위원장인 양 서예가는 대한민국미술대전,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다. 그는 '영주십경'을 묵향에 담아 '영주십경'을 붓끝으로 써 내려간 작품 60여 점을 선보인다.

울릉 울릉 울릉도 모집인원 40명

인기 연예인과 함께하는 가요콘서트

울릉도 탐방 - 2021. 11. 19(금) ~ 21(일)

549,000 (2인1실 기준)

· 제공내역 : 황북항공로, 크루즈(6인1실 침대), 전일정 식사
· 불포함(음선) : 독도탐방(55,000), 죽도(20,000), 유람선(25,000), 게이볼카(7,500), 기사탑(10,000)

주요일정 | 라페루즈리조트 숙박

- ① 제주공항-대구공항-포항콘서트홀(공연)-승선
- ② 울릉 도착-육로관광 A코스
- ③ 육로관광 B코스-승선-포항도착-대구공항-제주공항 도착



[박 군]




[위일청]


[최명철]


[손 빈]


[현 방]


[황진희]


[배진아]


[유 미]


[강명화]

 T. 759-9055

 (주)퍼시픽투어 T. 747-8099

 (주)굿모닝제주투어 T. 723-3350

 아 주 관 광 T. 757-7771